

###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전

## ‘출산과 양육의 역사’ ... 근대 조산사 등장

전통사회에서 현대까지 출산과 양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910년대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출산문화가 변화하며 여성의료인으로 등장한 조산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가족과 함께 한 출산과 양육의 역사’ 주제로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국립여성사전시관 주관으로 마련됐다.

△임신, △출산, △다산(多産)에서 △소녀(小子女)로 △양육, △가정을 넘어 △사회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조산사의 등장과 변화 이야기는 ‘출산, 다산에서 소녀녀’ 중 ‘여성의료인의 등장’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1914년 산과규칙 반포, 1990년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등 중요 역사를 연표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산사에 대해 보도한 1910~20년대 신문도 전시됐다. 매일



출산과 양육의 역사를 다룬 특별기획전 중 '조산사의 등장과 변화'를 다루고 있는 전시코너.

신보(1913. 3. 26)에서는 ‘조산부양성소 첫 졸업생 허경자’를, 동아일보(1928. 12. 12)에서는 ‘산과 개업한 독립운동가 신재호의 부인 박자혜’를 기사로 다뤘다.

매일신보에서는 허경자에 대해 한문의 소양을 갖추고 조산부양성소에 입학해 2년간 학업에 정진했으며, 우등졸업생이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박자혜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간우회’를 조직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만주에서

단체 신재호 선생과 결혼해 아내이자 동지로 독립운동을 함께 했다. 서울에 돌아와 인사동에서 ‘산과 박자혜’ 간판을 걸고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후방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국립여성사전시관 1층 기획전실에서 9월 1일 시작됐으며, 2017년 8월 31일까지 열린다. 경기도 고양시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1·2층에 위치했다. 관람료 무료.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휴관.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 보건소 10곳,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9월 12일부터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 및 스마트폰과 연동된 스마트기기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혈압, 할당, 활동량 등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수시로 확인하며, 건강·운동·영양 등의 전문상담과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소는 △서울 중구 △서울 송파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 수지구 △강원 평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등 10곳이다.

보건소별 평균 1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이용자는 먼저 보건소에서 건강상태·생활습관 등에 대한 전문상담

을 받고 스마트폰과 연동된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할당계 등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상담을 통해 제시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실천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의 정보가 자동 측정돼 보건소로 전송된다.

보건소는 전송된 정보를 분석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미션과 월 3~4회의 건강·운동·영양·금연 등의 전문상담을 모바일 앱으로 제공한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계획을 제시받는다.

정진엽 장관은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지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과 혼자 운동, 식이요법, 금연 등 건강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의 효과적 모형을 마련한 후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jo@

###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서(면허 효력정지) 발송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서(면허 효력정지)를 9월 21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서 발송에 앞서 사전통지 안내문을 두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 ○행정처분서 대상자

-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2만8600여명

#### ○행정처분서 공지내용

- 2016년 11월 1일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효력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효력 발생시점 이전인 2016년 10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행정처분은 취소됨

### 면허 미신고자 사전통지 안내문 재발송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통지 안내문을 9월 21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차례 보낸 사전통지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를 대상으로 주소 재확인 등을 거쳐 3차 발송한 것입니다.

#### ○사전통지 안내문 대상자

-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6300여명

#### ○사전통지 안내문 공지내용

- 2016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됨. 효력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효력 발생시점 이전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행정처분은 취소됨

###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발표

####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폐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되고, 암생존자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위험흡연자인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로 시범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갑년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암생존자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운영을 계획한다.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한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체계를 다양화(가정형·자문형)하고, 소아 호스피스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및 암환자지리지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기로 했다.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

### 유엔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 열려

#### 한국,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 적극 참여 천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 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협이자 도전과제”라며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들의 의지와 다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국내에서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며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 참여 의지를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과 마거릿 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마거릿 쉐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금융지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및 규제, 새로운 치료제·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6년 면허신고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3년 면허 취득자  
- 2013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면허신고 기간 : 2016. 1. 1~16. 12. 31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2016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19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6년에는 면허신고를 하실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KNA 면허신고센터

- 직접 찾아가기 (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세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